

# “명확성의 원리”로서의 문학어

- 문학의 언어를 둘러싼 입화의 비평적 사유 -

강계숙\*

## 목 차

1. ‘민족어의 담론 / ‘문학어의 담론
2. 입화 언어론의 형성 배경
3. ‘문학어=형상적 언어’의 담론적 진화
4.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과 시적 언어
5. 나오며 -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이상(理想)

### 〈국문초록〉

본고는 입화의 언어론 중 문학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언어론은 복합적인 형성 배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인 마르크주의의 수용, 둘째 형상 개념의 이론적 정립 및 비평적 전유, 셋째 복고주의와 기교주의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넷째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완미한 개화’의 요구, 다섯째 기교주의 논쟁의 영향 및 카프시에 대한 자기반성이 그것이다.

입화는 ‘형상의 구체성’을 문학의 예술적 특수성으로 인식하였는바 ‘문학어=형상적 언어’로 정의한다. ‘형상적 언어’는 구체적인 의미전달에 충실한 언어로서 일상 생활에서의 인간적인 느낌, 감정, 의식 등을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의 언어를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언어는 ‘생활한 생활의 말’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가 일상어를 문학어의 좋은 소재(素材/所在)로 지목한 까닭은 복고주의 문학의 언어적 퇴행 현상을 조선어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이를 ‘조선어의 완미한 문학적 개화’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교주의 논쟁을 거치며 입화는 문학어를 대상의 형상화에 정합적으로 일치하는 언어로 재정리하고 이를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명확한 언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어는 ‘언어의 명확성의 원리’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원리가 일상어를 통해서만 실현된다고 전제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일상어의 합리적 기능과 실행을 가리켜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이라 표현하며, 이를 언어의 기본성질이자 언어의 소박한 상태로 꼽고, 이러한 언어가 바로 예술의 소재가 되는 언어라고 부연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어의 문학적 가치를 중시한 것과는 별개로 문학어와 일상어를 엄밀히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문학어란 일상어가 예술적 구축에 요구되는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 미적으로 재탄생한 언어이며, 이는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문학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학어는 그 외형에서만 일상어와 유사할 뿐 실은 별개의 언어임을 분명히 한다. 요컨대 문학어는 예술적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통과한 ‘일상어의 현실성의 에센스’인 것이다. 임화는 이러한 문학어의 특징이 가장 현저하게 구현되는 영역으로 시를 꼽았고, 훌륭한 시적 언어는 시의 고유한 창조 가운데 일상어를 내용상 형태상 재구성하여 전혀 다른 언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 미감과 사실적 내용은 잊히지 않는 아름다움이 되어 강한 정신적 충동을 남긴다고 설명한다.

주제어: 임화, 언어론, 문학어, 조선어, 복고주의, 기교주의, 형상적 언어, 일상어, 명확한 언어,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 선택과 정련의 과정, 시적 언어

## 1. ‘민족어’의 담론 / ‘문학어’의 담론

한국의 근대문학 비평사에서 임화의 비평이 차지하는 위치는 재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비평의 대상과 범위, 방대한 양과 수준, 과학적 방법론의 일관성, 그에 입각한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의 이행,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참조되는 문학사의 기술 등은 동시대 다른 비평가와 비교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문학 일반론에서부터 장르를 넘나드는 비평의 이월과 횡단은 당대 문학과 현실에 대한 그의 사유의 스펙트럼을 증명한다. 또한

담론장의 변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변증법적 사유의 실천적 글쓰기는 그 전모를 탐색할 때마다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임화 연구자들은 하나의 주제어를 검토할지라도 마치 깊은 산맥의 능선을 타고 넘는 것처럼 각 개념과 이론의 중층적 교차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에 주목해야만 타당한 분석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가 주창한 ‘리얼리즘’이 현재에도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 1936년을 전후로 발표된 그의 언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 온 주제 중 하나다. 언어-문학어-민족어-조선어-조선어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언어론이 단순히 언어 그 자체에 국한된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케 한다. 그간 대부분의 연구는 그의 언어의식을 민족어 및 민족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해왔다. 문학어로서의 민족어에 대한 인식은 조선어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천착하게 하였고, 이는 민족문학으로서 조선문학에 대한 사유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일제 말 민족어 말살의 상황에서 그가 당대 파시즘 체제에 대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하였는지가 언어의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파악되었다.<sup>1)</sup> 또한 임화가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점에 착목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념의 자장 속에서 언어의 계급성을 중시한 것이 언어론의 핵심으로 간주

1) 대표적으로 다음의 예를 꼽을 수 있다.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김예림, 『초월과 중력, 한 근대주의자의 초상-일제 말기 임화의 인식과 언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5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와타나베 나오키, 『임화의 언어론-1930년대 중·후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8집, 국어국문학회, 2004; 배계화, 『민족어, 민족문학, 리얼리즘』, 『현대소설연구』 3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신두원, 『변증법적 사유와 실천의 한 절정-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임화』, 『민족문학사연구』 3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윤대석,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장용경, 『일제하 임화의 언어관과 ‘민족’의 포착』, 『사학연구』 100집, 한국사학회, 2010; 하정일, 『임화의 민족문학론과 언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3집, 한국근대문학회, 2011; 김영범, 『1930년대 중후반 임화 비평의 언어적 모색과 좌절』, 『어문논집』 79집, 민족어문학회, 2017.

되기도 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연구도 대개는 ‘계급어=민중어=민족어’의 등식에 따라 언어의 계급성에 대한 강조가 추후 민족어/민족문학의 담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거름못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러한 논리는 해방 후 임화가 인민적 기초에 따른 민족문학의 건설을 테제화하였을 때 그 내용이 일련의 언어론 속에 예비되어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로 비추어 보건대 해방 전후의 민족문학 담론은 이념적 연속성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sup>3)</sup>

임화의 언어론을 ‘민족어-조선어’의 담론으로 초점화하여 이를 민족문학 적 관점과 탈식민적 저항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그리고 일제 말 언어 문제를 둘러싼 문학적 지형도 내에서 임화의 위치를 추적하는 징후적 텍스트로 독해하는 것은 역사적 평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는 ‘전향’이나 ‘친일’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간의 논의들은 일제 말 임화의 언어론이 현실의 ‘국가(일본-제국)’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과시즘의 ‘정치’ 맥락 으로부터 민족어를 고의로 탈각시키는 ‘비정치화’의 방법을 통해 민족어 및 민족문학을 수호한 내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임화의 언어론이 모두 ‘문학어’에 대한 담론이라는 것, 즉 ‘문학의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암암리에 누락한 경우가 많다. ‘언어-문학어-민족어-조선어’의 관계항 중 문학어를 괄호친 채 ‘언어-(문학어)-민족어-조선어’

2) 대표적으로 배개화, 위의 글; 남기혁, 『시어로서의 ‘조선어=민족어’의 풍경과 시단의 지형도-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시와 평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임동현, 『1930년대 중반 임화와 흥기문의 사회주의 민족어 구상』, 『민족문화연구』 7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참조.

3) 배개화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다. 같은 시기 발표된 신두원의 논의는 언어의 계급성을 직접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개화의 논지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고, 하정일은 민족어의 수호가 임화의 민족문학론을 의미하게 만든 ‘내적 저항’의 방식이자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논증한다.

의 개념적 상관성을 집중적으로 특화하여 언어 담론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화의 언어론을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의 이념적 성격을 밝히는 논거로 자료화한 데서 비롯한다.

언어 문제를 다룬 임화의 평문은 그것이 어떤 글이든 ‘문학의 언어’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의 언어론은 예외 없이 문학과 언어의 관계를, 그리고 문학어의 특징을 먼저 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가 언어를 논할 때, 그 궁극적 의도는 문학어란 무엇인지/이어야 하는지, 문학어로서의 민족어는 무엇인지/이어야 하는지, 따라서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는 무엇인지/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바쳐진다. 더불어 임화는 민족어를 역사적 개념으로 규정하는바 이때 역사성이란 작금의 시대, 즉 근대를 가리키며, 따라서 ‘민족어=근대어’라는 등식이 그의 담론에는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의 언어론에서 ‘문학어’와 ‘근대어-민족어-조선어’는 동시적 병렬개념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임화의 언어론이 근대어로서의 ‘문학어’에 대한 담론이었다는 사실을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당연한 전제였기에 간과되었거나, 아니면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내용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임화의 언어론이 1930년대 중반 이후 그의 비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언어란 문학예술의 본질적 원천이자 요소이며, 소재이자 수단이고, 유일한 매재(媒材)임을 고려할 때, 문학어에 대한 임화의 사유는 우선 검토되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sup>4)</sup>

4) 임화의 언어론을 문학어에 대한 담론으로 분석한 예로는 신재기, 『임화의 문학언어론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여태천, 『임화의 언어의 식과 시의 현실성』, 『어문논집』 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백지은, 『역설의 일관성-임화의 언어론 연구』, 『동양학』 4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고봉준, 『임화와 김수영의 ‘언어관’ 비교』, 『한국어문논총』 80집, 한국문학회, 2018 참조. 이 중 백지은의 연구는 본고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임화가 언어를 문제 삼을 때는 거의 언제나 “문학에 있어서의 언어”가 대상이었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이야기할 때도 그는 항상 (조선)민족 ‘문학의 말’로서 그것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위의 글, 10쪽)라고 밝힌 바 있다. 임화의 언어론을 고찰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주목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화의 언어론 중 문학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임화의 언어론은 당시 비평계에 제출되던 주요 논쟁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논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문학의 비판적 진단과 당대 문학이 타개해 나가야 할 방향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나갔다. 그로 인해 문학어에 대한 임화의 비평적 사유는 담론이 제출된 상황적 배경에 따라 내용의 층위가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문학어에 대한 그의 비평적 인식이 어떻게 심화되어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언어론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도해(圖解)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어에 대한 그의 사유가 명료하게 정리될 때, 비로소 민족어의 위기상황 하에서 그가 견지한 언어의식의 이념적 정체 또한 온당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의 언어론이 형성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복잡다기한 배경과 계기이다.

## 2. 임화 언어론의 형성 배경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1934. 6/ 1935. 1, 이하 「언어와 문학」으로 표기)가 발표된 1934년 무렵을 임화가 언어 문제에 주목한 시기로 본다. 그리고 이때의 문제의식이 「조선어와 위기 하의 조선문학」(1936. 3)으로 이어진다고 파악한다. 이 두 평문이 연속되었다고 판단되는 까닭은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집필 계기 또한 민족어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한 계기로 쓰였고<sup>5)</sup>, 후자는 내선공학제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 5) 와타나베 나오키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발표가 언어에 대한 임화의 관심을 촉발시켰다고 본다.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에 대한 문학가들의 찬반 논쟁과 잇따른 성명서 발표가 임화를 하여금 언어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와타나베 나오

의 시행으로 인해 조선어가 학교 교육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쓰였다.<sup>6)</sup> 공적 언어로서의 조선어의 가능성은 임화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맞춤법통일안>의 마련으로 조선어가 비로소 표준적인 언어체계를 갖추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어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은 민족어의 위상을 사유케 만든 주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언어와 문학』은 임화의 언어론이 검토될 때마다 첫머리에 놓인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임화의 논의는 산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 글 이전부터 등장한다. 글의 성격상 그의 언어론은 『언어와 문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언어와 문학』 이전에 발표된 글 중 언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글은 다음과 같다.

- (1) 『카톨릭 문학 비판』(1933. 8)
- (2) 『진실과 당파성-나의 문학에 대한 태도』(1933. 10)
- (3) 『비평에 있어 작가와 그 실천의 문제』(1933. 12)
- (4) 『집단과 개성의 문제-다시 형상의 성질에 관하여』(1934. 3)
- (5)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1934. 4)

(1)~(5)는 모두 형상 개념과의 연관 속에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학적 형상’은 임화에게 문학의 예술성과 동일시되는 본질적 모멘트로서 문학적 진실-작가의 세계관-예술적 당파성과 직결된 미적 전망의 근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임화의 인식이 형상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언어 담론의 기본전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단편적으로 거론되었던 언어 문제는 한동안 논의 밖에 있다가 1936년 1월부터 다시 주된 화제

---

키, 위의 글, 435~441쪽 참조

6) 윤대석은 조선에서의 내선공학제의 시행이 조선문단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음을 자세히 논증하고 있다. 윤대석, 위의 글, 201~204쪽 참조

로 등장한다.

- (6) 『시와 시인과 그 명예』(1936. 1)
- (7) 『조선어와 위기 하의 조선문학』(1936. 3)
- (8) 『언어의 미술성』(1936. 3)
- (9) 『언어의 현실성』(1936. 5)
- (10) 『예술적 인식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1936. 6)

위 글들은 언어의 일반적 특징, 언어와 문학의 관계, 문학어의 고유한 특질, 조선어의 문학적 쓰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발표시기로 보건대 위 글들이 연속해서 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이즈음에 임화는 언어 문제를 비평의 화두로 삼은 것일까? 내선공학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기엔 화제의 범위 및 내용의 층위가 각기 다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학』이후에 발표된 다른 평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역사적 반성애의 요망』(1935. 7)
- 『담천하의 시단 1년』(1935. 12)
- 『문학의 비규정성의 문제』(1936. 1)
- 『문학과 행동의 관계』(1936. 1)
-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1936. 1)
- 『기교파와 조선시단』(1936. 2)

위 글들은 (1)~(5)와 (6)~(10) 사이에 발표된 평문들이다. 그런데 이 글들은 ‘조선문학의 재건’<sup>7)</sup> ‘조선문학의 독자성’<sup>8)</sup>을 내세워 조선문단을 장악

---

7) 임화, 『역사적 반성애의 요망』, 『임화문학예술전집2-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소명출판, 2009, 352쪽. (이하 『전집2』로 표기하며, 임화 평문의 인용 시 필자 명 생략함)

8)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 『임화문학예술전집4-평론1』,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소명출판, 2009, 539쪽. (이하 『전집4』로 표기)



하기 시작한 복고주의적 경향에 대한 임화의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무렵 임화의 비평적 촉각은 복고주의 경향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그가 보기에 문학상 복고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보수적 민족주의가 역사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퇴영적 노선을 반영하고 있고, 고전부흥이라는 미명 하에 작금의 시대를 외면하는 현실 초월적 태도를 일관한다는 점에서 반시대적 이념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복고주의 문학은 “조선문학의 위기 현상의 표현”<sup>9)</sup> 그 자체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교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출된다. 「담천하의 시단 1년」, 「기교파와 조선시단」이 그것들로, 이 두 평문은 기교주의 논쟁의 대표적 글이다. 그가 복고주의를 비판할 때 언제나 기교주의를 함께 공격했던 까닭은 기교주의가 복고주의의 퇴화된 이념성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로부터 이탈과 초월을 방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복고주의와 기교주의를 겨냥한 이러한 임화의 비판은 조선문학의 위기 상황이 외부-제국의 파시즘적 정책-로부터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조선문단 내부에서 급속히 싹트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원인으로 의식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임화는 복고주의 문학을 비판할 때마다 조선어의 문학적 퇴행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러므로 만일 복고주의와 기교주의의 언어 사용이 조선문학의 심각한 한계로 인식된다면, 이에 대한 반명제가 임화에 의해 제출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화가 자신만의 언어론을 구체화시킨 바탕에는 이들 문학의 언어관을 역으로 반명제화하여 자신의 문학어 담론의 내용적 근거로 삼았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일련의 언어론이 기교주의 논쟁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기교주의 논쟁 중 박용철에 의해 날카롭게 질문되었

9) 「역사적 반성의요망」, 360쪽.

던바 임화가 생각하는 ‘시적 언어란 무엇이며, 그것의 언어적 특수성은 무엇인지, 임화와 카프의 시는 그러한 언어 사용에 성공한 시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sup>10)</sup> 무엇보다 카프시에 대한 자기반성이 미숙한 언어구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기교주의 논쟁 중 이 문제를 임화 자신이 직접 거론하면서 논쟁이 조선어의 시적 완성이 어느 편이 더 성공적이었는가를 논박하는 것으로 모아졌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언어론의 대표 평문이 기교주의 논쟁이 남긴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제출된 것이라는 추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sup>11)</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임화의 언어론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형성 배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첫째 1933~34년 무렵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에 따른 형상 개념의 천착 및 그것의 비평적 재전유 의 문제, 둘째 1935년 말부터 본격화된 복고주의와 기교주의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셋째 이러한 비판을 통해 개진된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완미한 개화’에의 요구, 넷째 기교주의 논쟁의 여파 및 카프시에 대한 자기반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층위의 배경적 맥락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임화의 언어의식이 점

10) 이에 대해서는 좋고,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5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228~238쪽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좋고, 위의 글, 244~246쪽; 고봉준, 위의 글, 264~269쪽 참조. 필자는 기교주의 논쟁과 임화의 언어론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논쟁 직후 임화가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언어와 문학어의 관계, 문학어의 특수성과 시의 예술적 특질에 대한 것이었다. 프로시의 내적 한계가 예술적 형상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면, 시의 매체인 언어의 완미성을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념과 결합시켜 내용과 형식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위의 글, 244쪽) 한편 고봉준은 1936년에 발표된 일련의 언어론이 이전의 민족어 논의들과 그 층위가 다른 까닭은 기교주의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에 임화가 ‘언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쓴 평문들, 특히 위에 인용한 글들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논쟁의 맥락, 또는 조선교육령과 공학계에서 시작된 ‘민족어’ 논의와는 그 층위가 다르다. 오히려 이것들은 김기림, 박용철 등과의 ‘기교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읽는 것이 타당하다.”(위의 글, 264~265쪽)

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언어 일반에 대한 사유로서 마르크스주의 언어론의 영향이다. 임화는 1920~40년대 소비에트 언어학을 주도하였던 마르의 언어론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따라서 문학어의 담론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주의와의 영향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문학어=형상적 언어’의 담론적 진화

문학-예술은 **형상의 구체성** 위에 서는 것이다. 즉 **생생한 생활의 진실의 말** (언어), 그것만이 문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문학 가운데서 **생활의 진실한 말**을 제외한다면 잔여의 것이란 썩은 양철통같이 빈약한 작가의 정신적 그림자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다.<sup>13)</sup> (강조-인용자)

예술만이 갖는 독자적인 특수성이라는 것은 주지와 같이 다른 과학이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술은 **생활의 현실적인 ‘형상의 말’**을 가지고 인식하고 사유하고 표현하는 그것이다.<sup>14)</sup> (강조-인용자)

문학이 본래 **언어적 형상**을 통한 감정이나 정서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 감정 정서를 생생한 힘으로 남에게 전하려면 그러한 감정 내지 정서를 일으키지 아니치 못한 일정한 상태의 **사실적 형상**을 제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sup>15)</sup> (강조-인용자)

12) N. Ya. Marr는 러시아의 언어학자로, 그의 언어학은 스탈린에 의해 공식 비판을 받기 전까지 1920~40년대 소비에트 언어학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언어론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을 일컬어 ‘마르크주의’라고 지칭한다. 와타나베 나오키는 임화의 언어관이 마르에게서 영향 받은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와타나베 나오키, 위의 글, 447~448쪽.

13) 「진실과 당파성-나의 문학에 대한 태도」, 『전집4』, 290쪽.

14) 「비평에 있어 작가와 그 실천의 문제」, 『전집4』, 322쪽.

15)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임화문학예술전집3-문학의 논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소명출판, 2009, 22쪽. (이하 『전집3』표기)

1933~34년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이 카프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기로 위 인용문들은 논쟁의 대표적 평문에 속한다.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 임화는 이에 대한 답이 형상 개념의 과학적·이론적 정립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형상론으로 불리는 일련의 글에서 그는 형상이야말로 문학을 다른 여타의 영역과 구분 짓는 예술성의 요체로, 문학을 문학-예술이 되게끔 만드는 독자적 특수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형상은 그 자체 구체적인 것으로 “형상의 구체성”은 형상의 본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학은 예술적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형상의 구체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형상이란 “생생한 생활적인 구체성의 표현 그것으로서 자기를 형성하는 유일의 형태”<sup>16)</sup>, 즉 생활 현실을 생생히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구체성의 획득을 자기목적으로 삼는 형태이며, ‘형상의 구체성’은 그러한 생활 현실의 객관적 조건인 외부 세계 및 인간 주관 간의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형태화한 물리적 상태를 뜻한다. 형상이란 생생하고 현실적일수록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형상의 구체성’은 형상의 성질을 주관하는 규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상의 예술성을 완성한다.<sup>17)</sup> 이러한 “형상의 구체성”은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생활의 현실적 형상’ ‘사실적 형상’ ‘형상적 구체성’ 등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적 수사는 형상을 이루는 ‘언어’의 속성에 대한 서술을 반드시 동반한다. “생생한 생활의 진실의 말” “생활의 진실한 말” “생활의 현실적인 ‘형상의 말’” 등이 그것이다. 형상 개념은 그것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언어의 특정한 작용 및 속성으로 정의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형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언어적 형상”이며, “형상의 구체

16) 『문학에 있어서의 형상의 성질 문제』, 『전집4』, 307쪽.

17)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참고, 『1930년대 후반 임화 시론의 이론적 변이 양상에 대한 고찰-‘형상’·‘표현’·‘감정’의 개념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7집, 상허학회, 2019, 213~214쪽.

성”이란 “언어적 형상”에 따른 생활-현실-사실의 문학적 형태화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형상이 문학-예술의 미적 특수성으로 지목되는 한 필연적이다. 문학의 형상은 그것의 유일한 수단인 언어를 논의로 하고는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상의 근본 조건으로 언어를 소유하는 순간 ‘언어는 어떻게 형상의 구체성을 실현하는가’ ‘언어는 그것을 어떻게 조건 짓는가’ 등의 물음이 수반된다. 그렇기에 형상 개념의 비평적 천착은 언어를 둘러싼 일련의 이론적·미학적 사유를 요구한다. 문제는 문학이란 “언어적 형상을 통한 감정이나 정서의 전달”이며, 그것은 “일정한 상태의 사실적 형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문학적 형상은 어떤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정립되는가라는 물음을 낳는다. 이것은 언어를 어떻게 써야 문학어가 되는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임화는 『언어와 문학』에서 “형상적 언어”라는 다소 동어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그는 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점층적으로 덧붙인다.

문학은 제 사물을 그 순수한 상태대로 향수하여, 추상적인 논리로써가 아니라 **형상적인 언어**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중략...) 문학예술은 제 사물을 그것 이외의 것으로는 그것의 구체적 자태를 표시할 수 없는 **가장 타당적인 표현**으로서의 언어와 그 기록으로써 표시하는 것이다. 추상된 개념이 아니라 제 사물이 그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간에게 인상을 준 **직접적인 형용**으로서의 언어에 의하여 이야기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존재에 대하여 **가장 타당적인, 가장 구체적인 의미의 언어**에 의하게 된다.<sup>18)</sup> (강조-인용자)

따라서 문학적 문장이 다른 모든 종류의 문장에 비하여 가장 언어적인 것이며, (...중략...) 동시에 언어는 문학이 성립하고 존재하는 유일의 형식이라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형상이란 것이 예술과 문학에 있어 고유의 것이라면 문학적 형상에 있어 언어라는 것은 실로 유일의 것이다.<sup>19)</sup>

18)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집4』, 459~460쪽.

19) 위의 글, 460쪽.

문학에 있어서의 언어는 그 가장 완미한 의미의 언어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언어의 완미성! 이것은 어떻게 문학적 현실 가운데 실현되는가? 거듭 말했거니와 문학의 예술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실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또 현실적인 언어**만이 문학적인 자기표현에 적응한다.<sup>20)</sup>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에 따르면 ‘문학어=형상적 언어’이다. “형상적 언어”란 “직접적인 형용으로서의 언어” “가장 구체적인 의미의 언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언어”이고, 문학에 포섭되는 “광범한 제 현실이 자기를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을 느끼지 않는 자유롭고 풍부한 언어”<sup>21)</sup>이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의 이상적 언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에 대해 임화는 “만인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만인이 곧 이해할 수 있는 말”<sup>22)</sup>이라고 부연한다. 이는 결국 ‘생활의 언어’<sup>23)</sup>를 가리킨다. “형상적 언어”로서의 문학어의 이상은 현실어, 구체어, 생활어 가운데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만이 인간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느끼고 의욕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형상적 언어”를 가리켜 “직접적인 형용으로서의 언어”라고 했을 때의 의미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인간적 느낌, 감정, 의식, 욕망을 다른 매개를 필요치 않고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인 언어, 그러한 형태를 지향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이를 뒷받침하듯, 임화는 좋은 문학어의 소재(素材/所在)로 ‘생생한 생활의 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왜 생활어가 문학어의 이상적 보고(寶庫)라는 위상을 점하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 언어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고, 둘째 언어의 투명성을 담지하는 “명확한 언어”<sup>24)</sup>의 현실성<sup>25)</sup>과 관련이 있다.

20) 위의 글, 461쪽.

21) 위의 글, 461쪽.

22) 위의 글, 461쪽.

23) 『시와 시인과 그 명예』에 따르면, 이것은 ‘일상어’로 정확히 지시된다.

우선 전자는 마르크주의 언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마르크주의는 언어학의 유물론적 접근 방법을 이론화하여 언어의 내용과 형식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마르크에 따르면, 언어는 물질 토대 및 생산 관계를 기반에 둔 상부구조에 속하며, 사회적·경제적 상부구조인 언어는 그에 따라 계급적 특질을 지닌다. 마르크주의의 이론 중 임화의 언어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① 언어발생기원론 : 언어의 기원은 일원적이며, 노동과 사유와 언어는 불가분의 삼위일체로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② 언어발전단계론 : 한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이동·변화할 경우 언어발전 단계도 반드시 이동하며, 사회적 변화에 의해 언어의 진화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언어상부구조론 : 언어의 형식과 내용에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고, 언어 변화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발전은 언어학의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언어의 탐색은 언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탐색하는 것과 동일하다. ④ 언어의 계급적 성격 : 계급성 없는 사고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급성 없는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언어 내의 많은 차이점은 계급성에 따른 결과이다.<sup>27)</sup> 이러한 내용을 참

24) 「시와 시인과 그 명예」, 『전집4』, 492쪽.

25)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6) 임화는 마르크의 언어론을 여러 군데서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중 다음 내용은 그가 마르크의 언어론을 비교적 자세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과정 중의 육체적 운동과 두뇌적 사유와 언어가 불가분의 삼위일체로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설에 언어학적 확인을 여(與)한 것은 연전에 사거한 소련의 아페테 학자-이 언어학과의 호칭-N. Y. 마르크이다. 그의 소설(所說)에 의하면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현재에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 행동으로부터 분리된 발성 언어가 아니다. 최초의 노동행위 가운데서 원인(原人)들이 육체적 동작을 가지고 연작(演作)한 ‘가시적인 교통 수단’인 ‘동작언어’라는 것으로, 이곳에는 행위와 사유와 언어가 혼일히 융합된 상태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유가 노동과 불가분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N. Y. 마르크는 “언어는 사유와 불가분의 것이며, 언어는 사유와 함께 존재하고, 사유의 외부에 언어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문학과 행동의 관계』, 『전집4』, 534~535쪽.

27) 표상용, 「1920~40년대 소비에트 언어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마르크주의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3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5, 406~408쪽 참조.

조하면 임화가 왜 조선문학의 전개를 논할 때마다 “언어상의 부르주아적 혁명”<sup>28)</sup> 및 그것의 역사적 실패를 문제시켰는지, 그러한 관점의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년대 조선의 근대문학의 문체는 1880년대의 그것에 비하여 거대한 진보의 결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적극적인 것을 최대한 가산한대도, **언어상에 있어 민주적 개혁**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은 주로 이 시대의 문학의 계급적 역사적 성질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중략...) 그들(부르주아 작가-인용자 주)은 언문일치의 문학화보다도 혼돈한 언어 가운데로부터 문학을 찾기에 유행의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언어상의 민주주의적 정책**이 수행될 수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sup>29)</sup> (강조-인용자)

시민적 문학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빈약하고 비시민적인 신문학이 **문학상의 시민적 혁명을 수행치 못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문학은 조선어의 미라든가 풍부성이라든가 고도의 합리성이라든가를 발견치 못하고 때로 부분적인 성과도 통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시민적 문학으로서 가능한 달성이란, 첫째 시민계급이 사회생활에서 표준어-근대적 통일어-를 획득할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표준어의 확립 없이는 개개의 작가의 개척도 비통일적 분산적이어서, 어떤 작가는 보다 소시민적이고 또 인텔리적이며 때로 봉건 농민적으로 개별화되는 것이다.<sup>30)</sup> (강조-인용자)

조선에서의 부르주아 언어혁명의 실패라는 임화의 평가 이면에는 마르크주의의 이론이 행간에 전제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사회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동하는 경우, 다시 말해 조선이 근대사회라는 역사적 단계로 이동하는 경우 이 변화에 의해 언어의 진화는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이 발전 과정은 필연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띠며, 이때 언어의 계급성은 부

28)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476쪽.

29) 위의 글, 481~482쪽.

30) 『언어의 마술성』, 『전집3』, 461~462쪽.



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조선어의 근대적 진화에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조선어의 근대어로서의 내용과 형식은 그러한 발전 양상의 계급적·이데올로기 성격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언어적 혁명은 조선의 경우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을 이루어야 할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조선의 산업적 토대는 낡은 상태로 정지되어 문화의 근대적 건설은 불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sup>31)</sup> 이를 반영하듯 상부구조로서의 조선어는 근대어로서의 민주적 개혁이 미완에 그친 상태이며, “조선의 부르문학의 열등성, 불철저성의 가장 전형적 유물의 하나”<sup>32)</sup>로 자리잡고 있다. 조선어는 표준어 체제도, 통일된 언어도, 언문일치의 문체적 실현도, 심지어 문학어의 기본소재인 ‘정확한 언어’ ‘구체적 언어’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근대 언어사, 문학사는 조선의 계급의 비상히 특성적인 구성 부분인 것이다.”<sup>33)</sup> 게다가 임화가 보기에 이 실패한 계급의 문학어는 조선어의 복고적 퇴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래되는 언어 그것은 (...중략...) **순수한 봉건적 귀족의 언어와 한어**로 되어 있어 현대 민중의 산 언어와는 일편의 공통점도 없는 사(死)한 언어이다.<sup>34)</sup> (강조-인용자)

무엇보다도 그 문학의 형상성, 형식, 언어상에 심각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어휘의 풍부화를 위한 부자연한 세력에 인한 **방언의 난용**, 이미 **죽은 고어(古語)에의 편애** 등으로 문장이나 서술의 생채, 회화의 난해 등으로, 그들 형상성 위에 마이너스를 주었다.<sup>35)</sup> (강조-인용자)

31)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478~479쪽.

32)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 『전집4』, 597~598쪽.

33) 앞의 글, 482쪽.

34)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 조선의 시문학』, 『전집4』, 337쪽.

35)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 『전집4』, 558쪽.

예술적으로는 현대어의 모든 신선미로부터, 또 현대 호흡을 전하는 생생한 음  
률로부터 완전히 이거(離去)하여, **무의미, 난해한 고어·사어의 발골**과 부자유  
하기 짝이 없는 시조나 그와 유사한 정률시로 퇴화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강조-  
인용자)

위에서 드러나듯 복고주의 문학의 언어적 퇴화 현상에 대한 임화의 비판  
은 그 어떤 경우보다 신랄하고 반복적이다. 그는 귀족적·관료적·지주적  
언어인 봉건적 언어로의 역이행을 복고주의 경향이 대대 문학에 미치는 가  
장 심각한 폐해로 지목한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sup>37)</sup>  
그래서 임화는 “좋은 세계관만이 좋은 언어를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  
니 된다”<sup>38)</sup>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인식에 따른다면, 노동의 탄생이 언어  
의 기원이고, 언어의 단계적 진화란 노동 생활에 제약되며, 그러한 생활 세  
계에 좌우되는바 상부구조인 언어는 ‘생활어, 일상어, 민중적 구어’를 언어  
의 계급적 근간으로 삼아야 하고, 조선어는 이러한 언어를 좋은 문학어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는 임화에게 논리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문학어의 이상적 소재가 생생한 생활어로 지목되면서 언어론의 화제는  
이제 민족어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어란 기층 민중의 언어이며,  
그것은 곧 민족어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어와 문학』의 궁극적인

36) 『담천하의 시단 1년』, 『전집3』, 488쪽.

37) 기교파의 문학어에 대한 비판도 복고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비적 문학이  
나 지상주의적 문학이 도달한 형식미의 수준이라는 것도 눈앞에 보는 듯한 것이다. 한  
것해야 **사어의 부활이나 언어의 단순한 적목유회적 세공, 문장의 일상어로부터의 갈수  
록의 유리** (…중략…) **언어도단의 근소(僅少)와 고정화**, 조선어 독자의 **언어미의 파괴**  
와 언어학계에서 보는 관념적 언어학의 발달 등이 곧 그것이다. 특히 김기림, 김광균,  
황순원, 신석정 등 제씨의 시를 주의 깊이 읽은 사람이라면 그 사용하는 형용사, 명사  
등의 가경(可驚)할 유사와 그 용어의 **대부분이 상용어가 아니며 시형의 구어체로부터  
의 유리**, 그리고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어휘를 통털어야 백을 넘을듯말듯한 소수인 데는  
일경(一驚)을 금할 수가 없다.” (강조-인용자) 『역사적 반성애의 요망』, 368쪽.

38)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 576쪽.

집필 의도가 드러난다. 이 글은 “형상적 언어”로서의 문학어를 설명한 뒤 그러한 내용이 민족어와 맺는 관계를 서술한다. 임화의 논지에 따르면, 조선-민족-문학의 완미한 개화는 민족어의 문학적 완미성의 실현에 달렸다. 「언어와 문학」은 조선문학의 완미성의 실현이라는 이상이 어떻게 도모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문학어-형상적 언어-구체적·현실적 언어-민중적 생활어를 연결 짓고, 이를 문학어 일반의 문제에서 민족어/조선어의 문제로 한정 짓는다. 이로써 “조선어의 완미(完美)한 문학상의 개화”<sup>39)</sup>는 민족문학의 중요한 테제로 떠오른다. 이 테제는 이후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를 논할 때마다 조선문학의 궁극적 지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 4.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과 시적 언어

박용철의 「을해시단총평」(1935. 12)이 발표된 직후인 1936년 1월 즈음 임화는 기교파의 언어의식과 구분되는 그만의 언어론을 제출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서는 문학어의 고유한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와 시인과 그 명예」(1936. 1)는 논쟁과 직접 관련 있지 않지만, 논쟁의 핵심이 된 ‘문학어-시적 언어’에 대한 임화의 담론이 함축적으로 기술된 글이다.

따라서 똑똑해진 진리에 의하여 굳어진 신념은 똑똑한 눈을 낳고 똑똑한 눈은 모든 인간 사물을 똑바로 보고 느끼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명확한 언어**에 의하여만 표현되게 됩니다. 이 언어의 **명확성의 원리**란 곧 노래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그 말 아니면 그것을 표시할 수 없는-언어**를 고르게 되며, 보다 더 많이 감성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할 시적 감정은 가장 감성적인 제 조건을 많이 가진 함축적이고 음악적이며 가장 풍부한 연상성을 가진 아름다운 말-**시적 언어**-에 의하여 우리들의 시를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일상**

39)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485쪽.

어 그것입니다.<sup>40)</sup> (강조-인용자)

위 내용은 “정말로 영예 있는 신시대의 시인”<sup>41)</sup>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의 언어를 어떠한 원리로 선택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다. 진리를 파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아는 시인은 필연적으로 “명확한 언어”를 고른다. “명확한 언어”란 ‘노래의 대상에 가장 적절한 언어, 그 언어가 아니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가리킨다. 임화는 그러한 언어의 선택을 “언어의 명확성의 원리”라고 정의한다.<sup>42)</sup> 문학어는 이 명확성의 원리에 따라 선택된 언어다. 이러한 문학어는 대상의 표현에 가장 적절하고 그 외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어이므로 대상의 형상화에 가장 정합적으로 일치한다. “명확성의 원리”에 근거한 문학어는, 따라서, 그 자체 ‘형상적 언어’이고, 이 언어의 최상의 미적 성취가 시적 언어이다. 시적 언어는 “명확한 언어” 중 ‘감성적 조건을 갖춘 함축적이고 음악적인 언어, 가장 풍부한 연상성을 가진 아름다운 언어로서 시적 감정을 생생히 형상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은 형상적 언어·직접적 언어·구체적 언어·현실적 언어에서 파생되었지만, 후자가 문학어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비해, 전자는 문학어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임화는 그러한 “명확성의 원리”가 성립 가능한 까닭으로 일상어의 문학적 가치를 꼽는다.

일상어 그것만이 모든 것을 표현키에 부족함이 없는 어휘를 가진 것이고, 또 그것만이 국한된 언어보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일반성을 갖고 연상성이 넓으며 보다 함축성이 많고, 조작된 언어의 부자연 대신에 언어 본래의 생생한 음향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미적으로 가장 아름답

40) 『시와 시인과 그 명예』, 『전집4』, 492쪽.

41) 위의 글, 491쪽.

42) 『시와 시인과 그 명예』에서 문학어가 ‘명확성의 원리에 따른 언어’로 정의된 이후 임화의 언어론에서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거듭 등장한다. ‘정확한 언어’ ‘명확성의 언어’ ‘명석성의 언어’ ‘정확한 문학의 자기표현’ 등이 그것이다.

다운 시는 평범한 말에 비범한 내용을 담은 구어적 시이었던 것입니다.<sup>43)</sup>

일상어는 풍부한 어휘, 폭넓은 일반성, 높은 연상성과 함축성, 조작되지 않은 자연성, 대중적인 평범성을 갖춘 언어다. 임화는 이러한 언어의 형식화가 미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창안하였음을 과거의 구어적 시에서 찾는다. 시에서의 “미학적 조건과 대중성, 공리성의 조건”<sup>44)</sup>이 이러한 시에서 비로소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일상어의 위상을 이렇듯 문학적 차원에서 높인 까닭은 두 가지 맥락에 따른다. 하나는 “일체의 불분명한 언어, 비현대적 언어-사어, ‘고급 언어’<sup>45)</sup>의 반명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복고주의 및 기교주의의 언어 경향에 대한 비판이 이곳에 담겨 있음은 명백하다. 다른 하나는 언어의 투명성에 대한 임화의 확고한 주의·주장이다. 언어의 투명성이란 기호로서의 언어와 그것의 지시대상 간의 일치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가령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에 이름 없는 것이 없고, 인간이 체험한 사건, 사태 중에 명명 안 된 것이 없고, 인간이 느끼고 생각한 것 가운데 언어적 형식이 부여 안 된 것이 없다”<sup>46)</sup>리든가 “언어란 항상 의미하는 대상 그것의 반영이며 인간은 이것 없이 사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표현으로서의 한 개 한개의 단어는 연결되어 문학 논리가 되어 사유하고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삼라만상을 묘사하고 생각한 바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내가 밥을 먹겠다”는 말은 ‘내가 밥을 먹겠다’는 그 사실에 완전히 일치하여 문장화되어 이곳에는 나의 행위 가운데 있는 한 개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sup>47)</sup>라는 서술은 언어 기호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미와 완전히

43) 『시와 시인과 그 명예』, 492~493쪽.

44) 위의 글, 493쪽.

45) 위의 글, 493쪽.

46) 『예술적 인식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전집3』, 479쪽.

47) 『언어의 현실성』, 『전집3』, 472~473쪽.

일치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러한 설명은 언어의 기호적 성격에 대한 임화의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겠으나, 여기서 의도된 비는 언어의 일차적 기능인 사전적 지시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러한 명료한 지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언어, 즉 그 뜻이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언어는 언어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투명성은 언어의 존재 및 기능의 원칙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사유’, 즉 언어와 사유의 일치성을 언어의 속성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다. “언어는 사유와 불가분의 것이며, 언어는 사유와 함께 존재하고, 사유의 외부에 언어는 없다”<sup>48)</sup>는 마르크의 인용에서도 드러나듯 언어와 사유는 기원에서부터 동일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임화는 언어가 소통의 수단이자 기능적 도구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언어는 (...) 인간의 인식 사유 등의 주관적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므로 비자연적 정신적인 요소가 숙명적으로 가미”<sup>49)</sup> 된다고거나 “인간의 일정한 관념성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sup>50)</sup>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언어를 내용과 통합되어 있는 “사유의 형식”<sup>51)</sup>으로 보고, 그에 따라 언어를 “객관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역할을 동시에 소유”<sup>52)</sup> 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임화는 언어 일반에 대해 말할 때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사유와 동일한 언어’라는 두 층위를 오가며 비평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층위를 달리 전경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마술성」과 「언어의 현실성」은 전자를, 「예술적 인식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후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sup>53)</sup>

48) 각주30) 참조

49)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22쪽.

50) 「문학의 비규정성의 문제」, 『전집4』, 507쪽.

51) 「예술적 인식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477쪽.

52) 위의 글, 477쪽.

53) 요컨대 「언어의 마술성」에서는 “언어가 갖는 외관상 형식상의 일 성질을 확대하여 모든 사물 위에 편연(遍延)”(위의 글, 453~454쪽)시킴으로써 언어를 신비화·신화화하는

중요한 것은 임화의 언어론에서 기호형식과 지시내용을 동일시하는 언어의 투명성이 일상어의 근본 속성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어의 진정한 문학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나는 밥을 먹겠다’는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러므로 “나는 밥을 먹겠다”라는 데는 수많은 말 가운데서 ‘내가’가 아니라 ‘나는’, ‘밥이’가 아니라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먹겠다’ 등의 특정의 말이 선택된 것이며, 그것은 필요한 일정 방향으로 체계를 이루어 문장으로서 성립한 것이다. (...중략...) 이 단구 가운데 등장한 단어는 물론 각각의 내용하는 대상을 가장 명확히 의미하고 있을뿐더러, “내가 밥을 먹겠다”는 말은 ‘내가 밥을 먹겠다’는 그 사실에 완전히 일치하여 문장화되어 이곳에는 나의 행위 가운데 있는 한 개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때문에 “나는 밥을 먹겠다”가 아니라 “나는 밥을 먹었다”로, 즉 ‘했’자 하나가 ‘있’자로 변하는 것으로도 미래가 과거로 변하고, “밥을 먹겠는가?”고 주인이 물을 경우에 전자에 있어서는 나는 밥을 먹을 것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못 먹게 되고 만다. 곧 이 단구 가운데 몇 가지 단어는 되는데로 무엇이든 의미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소재를 적절히 의미

---

인식이 비판된다.(여기서 표현되바 “외관상 형식상의 일 성질”이란 언어는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언어 없이 사유할 수 없고, 사유 없는 언어도 없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어의 마술성’은 그러한 특징을 확대 과장하여 마치 언어가 인간 존재 이전에 있었다는 생각을 유발하거나, 인간 관념의 산물인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문화와 생활을 규정하려 하거나, ‘언어는 문화의 어머니이다’와 같은 언어지상주의·언어제일주의의 관념적 사고가 초래되는 것을 가리킨다.) 임화는 자신을 비판한 박용철의 논지 속에서 기교파가 언어와 문학을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 언어를 문학의 상위에 둬으로써 ‘언어의 기술(기교)’에 의해 문학이 좌우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임화에게 이러한 견해는 언어를 신비화하는 또 다른 관념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언어는 어디까지든지 하나의 표출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문학의 존재 그것의 유무를 제약하는 근원적인 무엇은 아니다”(위의 글, 451쪽)라고 하면서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 기능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현실성』에서는 의미를 생성하고 재구축하는 언어의 자율성이 아니라 의미를 표상하고 지시하는 언어의 도구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유의 외부에 언어는 없으므로’ 『예술적 인식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에서는 의미 표상의 수단적 기능이 아니라 사유의 형식 및 인식의 담지체인 언어를 논의의 중심에 둔다.

하고 있으며, 한 자도 바꿀 수 없이 거의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장구를 이룬 것이다. 이 때 이 말은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으로서 일문의 다른 여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 가운데는 **일관한 합리성이 지배**할 따름이다<sup>54)</sup> (강조-인용자)

위의 “완전한 현실성”이란 일상어의 지시적 기능-사전적·의사소통적 기능과 동일시되는-의 정확한 실행을 뜻한다. 이를 가리켜 임화는 “언어가 갖는 합리적 의의”<sup>55)</sup>라고 칭한다. 이러한 ‘현실성’의 획득은 위 인용문에 따르면 다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언어는 의미하는 대상이 있다. ② 언어는 대상을 의미하기 위해 선택된다. ③ 선택된 각 어구의 연결은 종합적 표현이 된다. ④ 왜냐하면 언어는 대상을 ‘명확히’ 의미하기 때문이다. ⑤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문장의 언어는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다. ⑥ ‘일관한 합리성의 지배’에 의해 언어는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이 된다.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이란 결국 일상어의 합리적 실행과 그 실행을 뜻한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임화는 ‘나는 밥을 먹겠다’와 같은 일상의 흔한 상용어를 예문으로 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을 가리켜 언어가 지닌 “기본 성질”로서 “언어의 소박한 자연적 상태”이자 “예술에 대하여 소재로서의 언어”<sup>56)</sup>가 지닌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임화는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을 언어가 예술의 소재로 쓰일 때의 특징임을 분명히 한다. 달리 말해 이 언어는 아직 문학어가 아니다. 그는 문학어와 일상어를 엄밀히 구별한다.<sup>57)</sup> 그는 “모든 종류의 문학상의 언어는 사실 그 외형에 있어서

54) 「언어의 현실성」, 473쪽.

55) 「언어의 미술성」, 464쪽.

56) 「언어의 현실성」, 474쪽.

57) 신재기, 남기혁, 여태천 등은 임화가 일상어와 구별되는 문학어의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도구주의적 언어관으로 문학어의 문제를 파악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만 원어와의 상사점(相似點)을 가질 뿐으로, 그실은 별개의 언어”<sup>58)</sup>라고 구분 짓는다. 문학어는 “문학이 원어를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연금술에 의하여 정련하는 것”<sup>59)</sup>이다.

문학은 자기의 내용의 표현에 있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많은 언어 가운데서 자유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무수한 언어 가운데서 예술적 표현 가운데로 선발된 광영을 얻은 언어는 원어(原語)-보통으로 실재한 말을 이리 부른다면-보다는 **특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예술적 건축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선 이것을 **원어로부터 문학어라고 구별**한다.

원어로부터 문학이 자기의 말-문학어-를 구별하는 가장 현저한 영역은 시다. 이곳에는 각 언어가 독특한 음향적인 고려를 지나 결합되고, 어법도 그 시의 고유한 의미 내용, 어감, 음향, 구성의 강약 등의 고려 가운데서 분해되고 재결합되어 **일상 원어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외모**를 정(呈)하게 된다. (…중략…)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일상 원어로 이야기하거나 기록하려면 훨씬 길고 또 듣기에도 미감이라든가 감명을 전하지 못할 것도 훌륭한 시적 언어로 재구성될 때 그것은 엄청나게 짧고 아름답고, 단지 이야기되는 사실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적 충동을 주면서 잊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변화의 힘만이 아니라, 물론 시의 내용이 된 생활적 내용에 의하여 **언어가 정련당한 때문**이다.

이런 작용은 그 차이가 현저한 시의 영역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위선 희곡, 그리고 소설 등에서도 다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sup>60)</sup> (강조-인용자)

문학어는 있는 그대로의 일상어를 있는 그대로 쓰는 언어가 아니다. 일상어는 예술적 구축에 의해 다른 형태로 분해되고 재결합되어 문학어가 된다. 문학어는 일상어가 특수한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 미적으로 재탄생

58) 『언어의 미술성』, 456쪽.

59) 위의 글, 456쪽.

60) 위의 글, 455-456쪽.

한 언어이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르 불문하고 모든 문학어에 해당한다. 문학어가 “생활의 언어’의 특수한 일종”이지만, 일상어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잘 이해되는 까닭은 “일상어 그것의 현실성을 부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에센스”<sup>61)</sup>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학어는 예술적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통과한 ‘일상어의 현실성의 에센스’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화 언어론의 중심 내용을 간추리면, 아마도 문학어의 최종 정의는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인 언어-일상어-중 “명확성의 원리”에 따라 형상화하려는 대상에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선택된 언어, 그래서 한 단어를 바꾸면 전체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언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어는 일상어를 언어의 좋은 소재(素材/所在)로 삼으면서 그것을 문학적 창조과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정련하는 언어이다. 문학어는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으로서의 창조적 에센스’인 것이다. 그것은 “언어의 합리성 가운데 심미성을 통일하는 것”<sup>62)</sup>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어의 특징이 가장 현저하게 구현되는 영역이 다름 아닌 시이다. 훌륭한 시적 언어는 일상어의 형식적 흔적을 외관상 지니고 있지만, 시의 고유한 창조 가운데 일상어를 내용상 형태상 재구성하여 전혀 다른 언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 미감과 사실적 내용은 잊히지 않는 아름다움이 되어 강한 정신적 충동을 남긴다. 이것이 입화가 파악한바 문학 언어로서의 시적 언어의 위치이자 예술적 가치이다.

## 5. 나오며 -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이상(理想)

본고는 입화의 언어론이 조선문학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당대 문학이 타

61) 위의 글, 456쪽.

62) 위의 글, 467쪽.

개해 가야 할 방향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왔다는 전제 하에 문학어와 관련된 그의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의 언어론은 복합적인 형성 배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인 마르크주의의 수용, 둘째 형상 개념의 이론적 정립 및 비평적 전유, 셋째 복고주의와 기교주의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넷째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완미한 개화’에의 요구, 다섯째 기교주의 논쟁의 영향 및 카프시에 대한 자기반성이 그것이다.

임화는 ‘형상의 구체성’을 문학의 예술적 특수성으로 인식하였으나 ‘문학어=형상적 언어’로 정의한다. ‘형상적 언어’는 ‘직접적인 형용으로서의 언어’, 즉 구체적인 의미전달에 충실한 언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인간적인 느낌, 감정, 의식 등을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의 언어를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언어는 ‘생생한 생활의 말’, 즉 일상어를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가 생활어, 일상어, 민중적 구어를 문학어의 좋은 소재(素材/所在)로 지목한 까닭은 복고주의 문학의 언어적 퇴행 현상과 기교주의의 구어적 일상어의 도외시 등을 조선어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이를 ‘조선어의 완미한 문학적 개화’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교주의 논쟁을 거치며 문학어를 둘러싼 임화의 인식 또한 심화되는데, 문학어를 대상의 형상화에 정합적으로 일치하는 언어로 재정리하면서 이를 ‘명확한 언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어는 ‘언어의 명확성의 원리’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원리가 일상어를 통해서만 실현된다고 전제하였다는 점이다. 임화가 파악하기에 일상어는 풍부한 어휘, 폭넓은 일반성, 높은 연상성과 함축성, 조작되지 않은 자연성, 대중적인 평범성을 갖춘 언어로, 언어의 투명성이 담보된 문학어의 보고(寶庫)이다. 그는 이러한 일상어의 합리적 기능과 실행을 가리켜 ‘완전한 현실성의 표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언어의 기본성질이자 언어의 소박한 상태로 꼽으며, 이러한 언어가 바로 예술의 소재가 되는 언어라고 부연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어의 문학적 가치를 중시한 것과는 별개로 문학어

와 일상어를 엄밀히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문학이란 일상어가 특수한 예술적 과정, 즉 예술적 구축에 요구되는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 미적으로 재탄생한 언어이며, 이는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문학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학어는 그 외형에서만 일상어와 유사할 뿐 실은 별개의 언어임을 분명히 한다. 요컨대 문학어는 예술적 선택과 정련의 과정을 통과한 ‘일상어의 현실성의 에센스’인 것이다. 임화는 이러한 문학어의 특징이 가장 현저하게 구현되는 영역으로 시를 꼽았고, 훌륭한 시적 언어는 시의 고유한 창조 가운데 일상어를 내용상 형태상 재구성하여 전혀 다른 언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 미감과 사실적 내용은 잊히지 않는 아름다움이 되어 강한 정신적 충동을 남긴다고 설명한다.

일상어의 언어적·예술적 가치가 언어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학어를 둘러싼 임화의 언어인식의 가장 독특한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일상어가 언어론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미하는 문학어가 일상어의 모사 혹은 복사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이다. 임화는 문학어≠일상어라는 점을 다른 맥락에서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약간의 작품 가운데서 방언이나 좋지 못한 말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감을 금치 못하게 하는 분이 있음을 본다. (...중략...) 이러한 추수주의는 ‘민중어를 쓴다’는 구실, 즉 푸쉬킨은 유모한테 그 말을 배웠다든가, 백낙천은 촌부에게 자작(自作)을 읽혔다든지 하는 고전 작가들의 태도를 잘못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푸쉬킨은 그 이상으로 신중히 노서아어의 보고(寶庫)로부터 전형적인 아름다운 필요한 언어를 골라낸 것이고 결코 닳치는 대로 골라잡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러므로 언어적 창조 가운데 전형성이란 언어의 합리성 가운데 심미성을 통일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문학 자체가 그러함과 같이 창조적 교육적인 것이다.

예하면 자기 처를 부를 때 경상도 방언이 “봐라! 물 좀 떠오나라!”하는 것은 명백히 낡은 가장제(家長制) 농촌의 유습을 표시하는 어법이다. 문학은 이것을

긍정 조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이야기되는 “어보! 물 좀 떠오소”로 교육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높은 문화어로 문학 가운데 살리고 해설함을 잊어서는 아니된다.<sup>63)</sup>

문학어는 일상어의 자연적 상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언어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일상어로부터 창출되는 언어이며, 높은 문화어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언어이다. 문학어는 확실히 근대적-문화적-문학적 기획의 산물이다. 이러한 “언어의 문학어화”<sup>64)</sup>가 조선어의 경우 매우 미흡하다고 여겼기에 그는 ‘조선어의 완미한 문학적 개화’야말로 조선문학의 최대 과제임을 누차 지적한다. 심지어 프롤레타리아 문학조차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언어의 무시자” “거의 무방침으로 일관” “되는대로주의(主義)” “노동자나 농민의 언어에 대한 무원칙적 추종의 태도”<sup>65)</sup> 등의 표현으로 프로문학의 언어적 한계를 적시한다. 이는 카프 문학을 향한 임화 자신의 가장 맹렬한 자기비판일 것이다. 이렇듯 그가 조선어의 문학어/문화어로서의 불충분함을 문제시한 까닭은 무엇보다 “민족어의 언어적 열등은 곧 정치적 열등의 직접의 표현으로, 그것은 곧 문화적 열등의 최대한 자”<sup>66)</sup>라고 인식한 데서 비롯한다. “조선어의 급일의 상태란 조선인의 생활 상태, 정치상의 지위를 이야기”<sup>67)</sup>하는 것으로, 임화가 보기에 조선어의 문제는 정치적·문화적 문제이며, 그것은 조선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고스란히 체현한다. 그렇기에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열등성은 다만 문학예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일본어)’의 강제 속에 조선어의 존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임화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63) 위의 글, 466-467쪽.

64) 위의 글, 457쪽.

65) 위의 글, 465쪽.

66) 『조선어와 위기 하의 조선문학』, 589쪽.

67) 위의 글, 590쪽.

1930년대 후반 무렵 임화의 언어의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특히 그가 문학 어로서의 조선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하였던가를 확인하려면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일편의 조잡한 각서』(1939. 3)를 살펴야 한다. 그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조선어의 문학어로서의 한계 혹은 질곡이라고 느껴지는 점”<sup>68)</sup>을 기술하기 위해서다.

창작 앞에 나타나는 조선어, 그것은 우선 담화(談話)에서 쓰이어지는 말, 그리고 사유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다. 그것이 함께 우리 앞에서 생활어로서의 조선말이다. 그러나 유감이나 우리의 사유상의 언어로부터 떨어진 것은 오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말은 자연 담화어다. 담화어가 우리에게겐 현재 유일의 생활어다. 우리는 모어의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자연 우리는 외어, 혹은 빈약한 말로 사유하여 풍부한 말로 표현해야 할 고통을 어느 곳 작가보다도 많이 받는다.<sup>69)</sup>

그러나 어휘란 속에는 사어, 고어, 외래어, 와전어, 혼성어, 방언까지 드는 것이다. 천혈(千頁) 사서(辭書)의 오분의 일이나 현대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조선어는 어떤 곳 말보다도 이 차이가 심할 것이다. 사서가 전부 문학어가 되지는 않는다.<sup>70)</sup>

단일한 사물을 여러 가지로 형용할 수 있음은 그 언어인(人)의 직관력의 발달을 증명하는 것이나 반대로 지력-이성-의 미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을 표현할 말이 있는 대신 그것을 통일하여 표현할 말이 없지 않은가? 의미의 정착의 불성립, 그것은 과학-특히 철학-과 문화의 미발달한 일 증거다. 조선어는 아직 철학용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sup>71)</sup>

68) 『문학어로서의 조선어』, 『임화문학예술전집5-평론2』,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소명출판, 2009, 97쪽. (이하 『전집5』로 표기)

69) 위의 글, 97-98쪽.

70) 위의 글, 98쪽.

71) 위의 글, 98쪽.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한번 조선어의 표현능력과 기능에 대한 낭만적 생각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략...) 문학어는 항상 ‘랑그’이고 언어 동태의 모태는 늘 ‘빠롤’이기 때문에!<sup>72)</sup>

임화가 이 글에서 문학어로서 조선어의 한계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랑그’의 부족이다. 창작상의 조선어는 “생활어로서의 조선말”인데, 이는 “담화에서 쓰여지는 말”과 “사유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로 나뉜다. 전자는 ‘담화어’, 후자는 ‘사유어’라고 칭할 수 있고, 문맥상 그것은 각기 ‘랑그’와 ‘빠롤’을 가리킨다. 그런데 현재의 조선말은 ‘담화어(빠롤)’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유어(랑그)’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각을 하고자 할 때는 외어, 즉 일본어로 하거나 아니면 빈약한 조선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임화는 이를 창작상의 큰 고통이라고 말한다. 천 페이지의 사전도 이러한 고통에 도움이 안 되고, 어휘란 속의 단어들 중 문학어와 사유어로 쓰일 만한 것은 매우 적다. 물론 조선어는 형용사가 풍부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는 역으로 이성의 미발달을 증명할 뿐이다. 이성의 작용에 필요한 말이 조선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미의 정착의 불성립”, 그것을 반증하는 예가 조선어에 아직 과학어, 철학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철학어’ ‘과학어’로 대표되는 이 언어의 부족은 엄밀히 말해 추상적·보편적 언어로서의 ‘랑그’의 부족이다. 조선어는 일반언어학에서 말하는바 언어의 보편적·추상적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의미의 명료성을 제공하는 보편적 언어, 의미 정착에 필요한 통일된 언어, 이성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추상적 언어, 즉 이러한 언어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사유와 철학과 과학이, 그리고 문학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어는 ‘랑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어에 대한 낭만적 사고, 예컨대 ‘우리말’ ‘모어’ ‘민족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어의 표현능력과 언어적 기능을 감상적으로 과장하거나 그 미

72) 위의 글, 99쪽.

흡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반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글에서 임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랑그’의 빈약함이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의 질곡과 한계라는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문학어를 “사유상의 언어”인 ‘랑그’로 규정한 데서 비롯한다. 그런데 왜 임화는 ‘문학어=랑그’라고 간주한 것일까? 그것은 첫째 문학어가 ‘생각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는 그러한 언어가 될 것을 지향해야 함을 당위로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임화는 ‘랑그’라는 표현을 통해 조선어가 나아가야 할 문학어로서의 이상(理想)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조선어가 논리적·추상적·과학적·철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언어이고, 그러한 언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때 일본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였기에 이를 타개할 방법을 ‘문학어=랑그’라는 표현 속에 담은 것이다. 민족어의 위기가 심대해지는 상황에서 민족적인 것으로서의 “조선색” “지방색”<sup>73)</sup>의 언어적 구현이 아니라 ‘랑그’로서의 현대적 완성을 조선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그리고 그러한 조선어의 문학어화를 당대 문학의 시대적 소명으로 지목하는 것은 임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도의 비평적 사유일 것이다. 그는 파시즘의 암울한 고조 가운데서도 현대와의 싸움은 현대적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조선민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더 높은 지성과 이성의 발휘, 더 많은 과학적·철학적 사고, 더 체계화된 문화적 개화라는 것을 정확히 의식하고 있었다. 이는 언어 문제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문학어를 지방어화(化)하는 방식<sup>74)</sup>에 그가 언제나 거리를 두었던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한다.

73) 임화는 “단일 조선문학의 특성을 ‘조선색’이나 ‘지방색’에서만 발견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조선문학을 식민지문학으로 고정화하려는 자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학상의 지방주의 문제』, 『전집4』, 723쪽.

74) 임화가 백석 시의 방언 사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토착어·향토어의 문학어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백석에 대한 임화의 비판은 위의 글, 719-720쪽.



하지만 조선어의 말살 정책이 가시화되는 1940년에 이르면 문학의 언어는 정반대로 정의된다. 문학은 “추상적인 의미의 일반언어”<sup>75)</sup>가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태리어와 같이 “정말 존재하는 언어”<sup>76)</sup>를 수단으로 한다고 표현된다. “정말 존재하는 언어”란 맥락상 ‘랑그’가 아닌 ‘빠롤’을 가리킨다. 이 언어들은 그가 말한바 “언어 동태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어=빠롤’로 등식이 달리 바뀐 데는 민족어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의 심각성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등식의 숨은 의도는 문학은 민족어로 쓰여야 한다는 것, 조선문학은 조선어로 쓰여야 한다는 사실의 재천명이다. 그는 이를 『언어를 의식한다』(1939. 8) 『예술의 수단』(1940. 8)에서 예술 창작의 원리 및 과정과 연관 지어 서술한다. 따라서 이 두 글은 일제 말 임화의 언어의식과 민족어 수호를 둘러싼 태도를 논증하기 위해 자세히 독해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서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추후의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임 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2-문학사』, 소명출판, 2009.
- \_\_\_\_\_,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3-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 \_\_\_\_\_,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4-평론1』, 소명출판, 2009.
- \_\_\_\_\_,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5-평론2』, 소명출판, 2009.

75) 『예술의 수단』, 『전집5』, 237쪽.

76) 위의 글, 236쪽.

2. 논문

- 강계숙,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5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 「1930년대 후반 임화 시론의 이론적 변이 양상에 대한 고찰-‘형상’ ‘표현’ ‘감정’의 개념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7집, 상허학회, 2019.
- 고봉준, 「임화와 김수영의 ‘언어관’ 비교」, 『한국어문논총』 80집, 한국문학회, 2018.
- 김영범, 「1930년대 중후반 임화 비평의 언어적 모색과 좌절」, 『어문논집』 79집, 민족어문학회, 2017.
- 김예림, 「초월과 중력, 한 근대주의자의 초상-일제 말기 임화의 인식과 언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5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 남기혁, 「시어로서의 ‘조선어=민족어’의 풍경과 시단의 지형도-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시와 평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 배개화, 「민족어, 민족문학, 리얼리즘」, 『현대소설연구』 3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백지은, 「역설의 일관성-임화의 언어론 연구」, 『동양학』 4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 , 「변증법적 사유와 실천의 한 절정-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임화」, 『민족문학사연구』 3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 신재기, 「임화의 문학언어론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여태천, 「임화의 언어의식과 시의 현실성」, 『어문논집』 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 와타나베 나오키, 「임화의 언어론-1930년대 중·후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8집, 국어국문학회, 2004.
- 윤대석,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 임동현, 「1930년대 중반 임화와 홍기문의 사회주의 민족어 구상」, 『민족문학연구』 7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 장용경, 「일제하 임화의 언어관과 ‘민족’의 포착」, 『사학연구』 100집, 한국사학회, 2010.
- 표상용, 「1920-40년대 소비에트 언어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마르주의를 중심으로

- 로], 『언어와 언어학』 3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5.
- 하정일, 「입화의 민족문화론과 언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3집, 한국근대문학  
회, 2011.

Abstract

A literary language as a principle of clarity  
- Im-Hwa's critical thinking of a literary language -

Kang, Gye-sook\*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s the content of a literary language among Im-Hwa's linguistic theories. His linguistic theory was shaped by complex backgrounds. His linguistic theory was influenced by the linguistics of Marxism,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shape, contained criticism of retroism and mannerism, and called for the comple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a literary language.

Im-Hwa defines literary language as 'the shaping language' because he recognizes 'concrete shape' as a speciality of literature. 'The shaping language' is a language that conveys meaning specifically and expresses human feelings, emotions and consciousness directly. He thinks that everyday language performs these verbal functions. The reason why he thinks everyday language is a good source of literature comes from his negative assessment of the literary language of retroism. Meanwhile, Im-Hwa's perception of the language of literature gradually deepens as he goes through mannerism argument. He redefines literary language as 'clear language' and explains that everyday language becomes literary language by 'principle of clarity', which means that language is written entirely to suit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e subject. He refers to this basic quality of everyday language as an "expression of complete realism." He regards this as the basic nature of language and explains that a language with these characteristics can become a language of literature.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despite his emphasis on the literary value of everyday language, Im-Hwa has made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

\* Myongji University

literary language and everyday language. The language of literature is a language in which everyday language has been reborn through a special artistic process, namely 'a process of choice and chastity'. The former and the latter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with only the appearance being similar. In short, literary language is the essence of everyday language that has been honed artistically. He says poetry is the most pronounced area of literary language. A good poetic language reconstructs the everyday language in the unique creative process of poetry and makes it a completely different language. Through the amazing changes of language, the beauty of the literary language and its realistic contents become leaving a strong mental impression.

Key Words : Im-Hwa, linguistic theories, literary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retroism, mannerism, the shaping language, everyday language, clear language, expression of complete realism, a process of choice and chastity, poetic language

<필자소개>

이름 : 강계숙

소속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sumomo@empas.com

논문투고일 : 2020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25일

